

누가 하느님/하나님을 말하는가?

한문덕

2014. 01. 23.

# 누가 하느님/하나님을 말하는가?

- 신-학(神-學)의 불가능과 신앙 성찰
- 신학 역사 되짚어 보기
- 다시 생각해 보는 하나님의 본질?

“아직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. ....”  
(공동번역성서 요한 1서 4장 12절 앞부분)

• 신학(神學 Theology = Theos + logia)

1) 하느님 이야기

- 유신론(일신론, 다신론, 유일신론, 범신론, 범재신론 등등) 무신론(심리학적, 사회경제적, 과학적, 철학적, 저항적 등등), 불가지론

2) 다른 학문 분야와 구별하여 그리스도교의 진리 전체의 연구

“도를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.”  
(道, 可道, 非常道. 노자)

- 하나님(神)과 인간의 말(學)의 거리 자각  
“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침묵하지  
않으면 안 된다.” (Whereof one cannot speak, thereof  
one must be silent. 비트겐 슈타인)
- 인간으로부터 시작하기  
“신학적 구성 작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인간  
의 생각/말/믿음을 성찰하기”  
“하나님 – 세계 – 인간 상상하기”

# 고/중세 : 하나님은 계신가?

- 계시다면 어떻게 계신가? 완전-불완전
- "있는 것은 있고, 없는 것은 없다."
  - > 참으로 있는 것!! -> 존재 그 자체(전체)
  - > 인식불가(없음으로 다가옴) 무의미의 문제 발생
- 그러나 없음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불완전한 것이 아닌가? 따라서 없음을 포함한 있음의 하나님 Cf. 없이 계신 하나님(유영모)
  - > 없음과 있음의 모순 문제 발생

# 근대 :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?

- 주체 안에 사로 잡힌 하나님(고백의 언어)
  - 인격적 하나님(실체-주체)
  - 유한의 반대로써 무한자
  - 전지전능, 무소부재 : 욕망의 투사
- > 기독교 신앙의 왜곡

# 현대 : “인간”으로부터 다시 성찰하기

-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현대인들에게
- 주체적 인간의 유한성 극복은 어떻게?
- 폐쇄적 주체로부터의 해방

# 자기 비움(사랑)

- 통치자, 무자비한 도덕가, 철학적 원리
- 갈릴래아 예수(십자가 사건)
- 창조론
- 삼위일체